

제 11장. 조선전기 지도의 제작

<조선전기 지도 자료 ; 2013.11.21>

1) 세계지도

A) 權近 천하가 지극히 넓다. 안으로 중국과 밖으로는 四海가 몇 천만 리가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을 요약하여 數尺되는 넓이에 그리게 되니, 자세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그림 그리는 자들이 대개 다소 삭제하고 간략하게 하는데, 오직 吳門 李澤民의 聖教廣被圖는 매우 상세하게 구비하였으며, 歷代帝王國都沿革은 天台僧 清濬의 混一疆理圖에 갖추어 실렸다. 建文 4년 여름에 左政承 上洛 金公 士衡·右政承 丹陽 李公 茂가 정사를 변하게 하는 여가에 이 그림을 참고하여 연구하고 檢詳 李蒼에게 명하여, 다시 더 상세히 교정하고 광피도를 합하여 한도를 만들었다. 그 遼水 동쪽과 우리나라 강역에는 태민의 <광피도>에도 또한 많이 빠져서 간략한데,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를 더 넓히고 일본을 붙여 새로 그림을 새겨 이룩하니, 조리가 정하여 볼 만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밖에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알 수 있다. **대개 지도를 보면 지역의 멀고 가까움을 알게 되니,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한 도움이 있었다.** 김·이 두 공이 그림에 힘쓰고 힘썼으니, 그 규모와 국량의 큰 바를 알 수 있다. 近은 재주도 없이 인재의 부족한 때를 당하여 參贊으로 두 공의 뒤를 따랐으므로, 이 그림이 이룩됨을 즐거이 보고, 깊이 다행히 여기는 바이다. 이미 내가 평일에 책을 강구하여 보고자 하던 뜻을 이루었고, 또 내가 다른 날 물러가 시골에 있으면서도 누워서 강산에 놀게 되는 뜻을 이루게 됨을 기뻐하면서, 이 말을 그림 아래에 쓰는 바이다. 建文 4년(1402, 태종 2년) 가을 8월 일에 기록한다(<歷代帝王混一疆理圖誌> 『동문선』 권105).

B) 예조에서 일본국 地圖를 바치었다. 당초에 檢校參贊 朴敦之가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지도를 구해 가지고 돌아온 후에, 그 지도 끝에다 誌文을 적어서 예조 판서 허조에게 주므로, 稠가 드디어 공인을 시켜 粧潢(粧纘)하여 바쳤던 것인데, 이때에 와서 예조에 명하여 그 지도를 본떠서 바치도록 하고, 인하여 兪교 柳義孫에게 지문을 쓰도록 명하였다. … 兪의손의 지문은, “일본 씨족이 바다 가운데에 나라를 세웠으나,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동떨어져서 그 나라 疆域의 자세한 것은 능히 알 수 없었다. 建文 3년(태종 1년, 1401) 봄에 검교 참찬의정부사 朴敦之가 그 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그 나라 지도를 보기를 원하니, 비주수 원상조가 제집에 갈무리하였던 지도 한 벌을 내어 보였으나, 유독 대마와 일기 두 섬이 빠졌으므로, 돈지는 곧 보충하도록 한 다음 모사해 가지고 돌아왔다. 그후 영락 18년(1420, 세종 2) 경자에 예조 판서로 있었던 지금의 판중추원사 허조에게 寄贈하니, 허조는 이 지도를 보고 고맙게 여기고, 다음 해 신축년에 드디어 공인을 시켜 粧潢하여 바쳤는데, 그 그림이 세밀하여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으므로 선덕 10년(1435, 세종 17) 이 예조에 명하여 圖書院에서 고쳐 모사하도록 하고, 이어서 신에게 그 도본 밑에다 지문을 쓰도록 명하셨다. 신은 그옥이 생각하건대, 천하에 지도란 것은 역대로 중하게 여기던 것인데, 하물며 이웃 나라의 형세이리오. …여기에서도 오늘날 왕화(王化)가 미치는 곳은 외방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바, 이것을 간수하여 영원한 세대까지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세종실록』 80권, 20년(1438) 2월 19일 계유).

C) 天下圖가 이루어지자, 임금이 여러 재추에게 내어 보이며 말하기를, “경들이 명나라에 조회하여 山川을 자세히 알 것이니, 이 지도를 보고 形勢를 살펴보도록 하라.”하였다(『예종

실록』 권6, 1년(1469) 6월 21일 계유).

2)우리나라 지도

A) 지승문원사 정척에게 명하여 상지와 화공을 거느리고, 함길, 평안, 황해의 3도에 가서 산천의 형세를 그림으로 그려오게 하였다(《세종실록》 세종 18년 2월 29일 을축).

B)경기관찰사가 아뢰기를, “연과곤(淵波昆)은 水勢가 느리게 흐르고 또 廣闊하지도 않으니, 三田渡의 빠르고 급하여 건너가기 어려운 것과 같지 않습니다. 청컨대 淵波昆을 津渡로 삼으소서.”하니, 명하여 記里鼓車로써 삼전도와 연과곤의 道路의 멀고 가까움을 재계 하였다.(『문종실록』 권4, 즉위년(1450) 10월 23일 계사)

C)世祖가 8도 및 서울의 지도를 의논하여 만들고자 하여, 禮曹參判 鄭陟·집현전 직제학 姜希顔·直殿 梁誠之·畫員 安貴生·相地 安孝禮·算士 朴壽彌와 더불어 三角山·普賢峰에 올라가서 산의 형상과 물의 줄기를 살피어 정하고, 世祖가 서울의 지도(한성도)를 手草하였다. 정척은 산천의 형세를 잘 알고, 강희안은 그림을 잘 그리며, 양성지는 지도에 밝았으므로, 또한 참여한 것이었다.(『단종실록』 권11, 2년(1454) 4월 17일 무술)

D)전 判漢城府事 鄭陟·同知中樞院事 梁誠之 등이 《東國地圖》를 바쳤다. 이보다 앞서 정척과 양성지 등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모여서 《동국지도》를 상고하여 확정하게 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완성되었던 것이다(『세조실록』 권31, 9년(1463) 11월 12일 병인).

E) 南原君 梁誠之가 上疏하기를 … 1. 신이 그웁이 생각하건대 地圖는 官府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또 민간에 흩어져 있게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에는 고려의 중엽 이전에는 五道兩界圖가 있었고, 我朝의 처음에는 李薺의 八道圖가 있었으며, 세종조에는 鄭陟의 八道圖와 兩界의 大圖·小圖 등이 있었고, 세조조에는 신이 만들어서 진상한 八道圖와 閔延·茂昌·虞芮의 三邑圖가 있으며, 그리고 지금 신이 만들어서 진상하는 沿邊城子圖·兩界沿邊防戍圖·濟州三邑圖와 安哲孫이 만든 沿海漕運圖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魚有沼가 만든 永安道沿邊圖와 李淳叔이 만든 平安道沿邊圖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삼도의 監司營에도 각기 圖가 있습니다. 그리고 倭僧 道安이 만든 日本琉球國圖와 大明天下圖도 비단과 종이로 만든 簇子가 각기 하나씩 있습니다. (『성종실록』 권138, 13년(1482) 2월 13일 임자).